

제15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09. 7. 14(화), 14:00~17:30

2. 장 소 : 울곡관 제1회의실(울곡관 204호)

3. 참 석 : 총 13명 중 11명 참석

- 참석 평의원 : 이일영 의장, 이원희 부의장, 유승익, 유승화, 이화숙, 최인규, 김찬영, 이해진, 김관균, 박윤규, 박상호 평의원 (이중한 간사)
- 불참 평의원 : 이순일, 오상탁

4. 회의안건

가. 의안(자문 및 심의)

- 안건1. 2008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자문사항)
- 안건2.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사항)
 -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 선정 및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제 5조 제7항에 따라 특별기구로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를 신설하여 평생교육 관련 사업 총괄
 - 중소기업인력개발센터: 평생교육원에서 특별기구인 “평생학습 중심대학추진본부”로 소속 변경
 -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 소속으로 “성인학위과정운영센터, 창조인재교육센터, 평생교육연구개발센터, 성인학습 및 HRD 컨설팅센터” 신설
 - WCU 사업(2차) 유형1(전공학과개설지원과제) 선정에 따라 계열에 속하지 않는 학과(부)에 대학원 “금융공학과” 신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제3항에 의거하여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분리하여 선발하는 내용반영

나. 제13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수정 사항

다. 논의사항 : 대학발전 계획 및 비전에 관한 사항

< 간서명 란 >

의 장



5. 개회선언

의장 이일영 : 재적평의원 13명 중 11명의 평의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별로 없고 안전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것은 보고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록에서 follow-up 해야 할 사항,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안전으로 올라온 비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조선일보에 났던 대학평가에 대한 내용과 우리 대학이 IT부분에서도 각광받지 못한 것을 포함해서 아주대학교의 현황보고 및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처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지난번 평의원회에서 대학발전 계획 및 비전에 관하여 질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체적인 현 상황을 설명하고 그 이후에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지만, 큰 내용 8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번 달 안에 착공 예정인, 다산관 앞 약 7700평 정도의 건물, 이름은 아직 정확하게 명명되지 않았습디만 가칭으로 '종합관' 이라고 붙였습니다. 지상 12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로써 800명 규모의 강당이 들어있고, 그 옆에는 컨퍼런스 할 수 있는 Room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공 예정은 2011년 2월로 비용은 약 338억 정도 소요됩니다. 31개의 강의실 확보로 강의실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약 40%이상은 특수대학원의 발전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대충 140~150억 정도를 부담을 시키려 할 생각입니다. 주차공간은 201대 정도이며, 옥상정원과 좋은 시설의 세미나 공간도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간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기숙사입니다. 국제화시대에서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많이 수용하기에는 기숙사가 부족하고, 한국인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약 3,550명 정도의 기숙사를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7월 정도에 착공 예정이며, 예산 1,400억원을 민자 유치하는데 어떻게 하면 학교 돈을 쓰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까, 또 한 가지는 학생들한테 기숙사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대학에는 경기도 유일의 법학전문대학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50명이지만 80명 정도로 늘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0명 정도가 되면 타산을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스쿨이 실제로 학교에 주는 임팩트는 굉장히 큼니다. 타 대학들이 경쟁적으

< 간서명 란 >

의 장



로 장학금을 주고 있어서, 우리학교는 상대적으로 적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학교의 경제규모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가 공과대학 이미지만 갖고 있다가 법학전문대학원 이미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절대적으로 진행해야만 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외부 장학금을 유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십 년 만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약학대학 390명을 증원해주는데 경기도에 100명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에 약대가 있는 곳은 성균관대 65명, 나머지는 신설이 될 것 입니다. 우리 학교도 설립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가 100명 중에서 몇 명을 따오느냐가 관전입니다. 우리가 총력전으로 약학대학을 유치하고, 이것은 법학전문대학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인원을 50명 정도만 받아도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약학대학 유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올해는 22억을 수혜 받았습니다. 이것의 평가는 수도권의 5천~1만명 규모 정도의 대학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거기에는 아주대학교, 서강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의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7개 학교가 선정되었으며, 우리학교가 보통 서강대 다음으로 2~3등 합니다. 국제화를 빼고 나머지 부분은 공과대학,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 돈을 전체적으로 취업에 15%, 장학금에 10%를 배정하고 나머지는 고강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내년에는 전액을 다 고강도 프로그램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고강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실력 있는 학생을 만들자' 는 것으로, 교수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같이 토론하고 집중적으로 실력 있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내실을 기하자 라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교과부에서도 저희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 평가입니다. 중앙일보 평가는 저희가 1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7점으로 우리 밑에 전국대가 86점입니다. 아시겠지만 전국대가 요즘에는 재원을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우리를 추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평가는 벌써 16년째 입니다. 상당히 안정된 대학평가시스템입니다. 아마도 올해 평가는 좋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평가에서 보면 재정부분이 12위로 종합 15위 보다는 높습니다만, 국제화부분이 39위로 나쁘고, 평판도 및 사회진출도가 19위로 나쁩니다. 물론 디테일 한 것은 분석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석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조선일보-QS에서 대학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조선일보-QS 대학평가는 세계적인 대학평가기관입니다. 아주대학교는 16위입니다. 중앙일보 평가에는 없었던 대학들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가 우리 위로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앙대가 20위권 밖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조선일보-QS 대학평가는 우리나라

< 간서명 란 >

의 장



라엔 맞지 않는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이유는 이거 같습니다. 학계평가가 30%입니다. 학계평가라는 것은 학계의 전문가들 2,700~2,800명이 모여서 평가를 합니다. 상당히 정성적인 평가이며 사람이 하는 평가를 합니다. 아무래도 큰 학교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교육비라는 것이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높기 때문에 단순비교하면 사립대가 불리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QS 대학평가에서도 우리 학교는 외국인 교원비율이 나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졸업생 평판도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졸업생 평판도는 주로 회사에서 얼마나 좋아하는가, 내가 장학금 내고 싶으면 어느 대학에 내고 싶은가 등 열 개 대학 순위를 뽑습니다. 선정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학교의 사이즈도 포함됩니다.

평의원 이해진 : 졸업생들이 점수를 주는 게 아닙니까?

간사 이증한 : 졸업생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작년에 우리가 아주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국내대학 Top10 재진입을 1단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적어도 Top10 진입은 우리 능력으로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대학 Top 50, 세계 100대 대학 등 나머지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는 것은 10개의 우수연구그룹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수교육그룹도 만들어서 고강도 교육을 진행 할 것이고 외국인 교수나 외국인 학생 수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전략과제는 네 개의 큰 줄기로 되어있습니다. 단계별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연구부문에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1단계 Top 10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작년부터 시작했지만 3년간 논문 발간편수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우수교육그룹을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4개의 연구 그룹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1~2개 연구그룹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08년부터 이미 정교수의 승진을 5년 단위로 A, B, C, D 단계의 승격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교수 능력별 연봉제 Track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문에서는 재학생 중에 외국인 학생을 늘려야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는 단순히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강도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소통하는 교육, 실력 있는 교육을 우리 브랜드로 만들 것입니다. 국제화부문은 외국인 전임교수 비율을 5%까지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강좌를 늘려야 합니다. 우리학교 교수들의 Society System도 자극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위해서 외국인 전임을 뽑을 수 있도록 학칙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선발도 늘어날 것이고, 현재 중국에 두 개의 한국어학당이 있는데 한국어학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을 정책으로 하고 10개까지 캠퍼스를 추

< 간서명 란 >

의 장



가 설립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제화부문은 한발 늦었습니다. 내년 부터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시입니다. 입시에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우리학교 규모와 수준에서는 과거에 미디어학부 만들어 성공한 것처럼 좋은 브랜드 를 만들어 내야합니다. 금융공학부를 신설하여 장학금을 월100만원씩 엄청나게 주고 우수학생을 뽑을 것입니다. 몇 개를 특화해 놓으면 다른 학부도 연쇄적으로 올라 갑니다.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직원 쪽입니다. 정규직 직원이 실제로 단순 직업에서 어려운 일까지 전부 다 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외국 대학의 경우 행정 인력의 70%~80%가 Secretary입니다. 한국 대학에서도 현재 쓰는 인건비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면 효율이 훨씬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구조조정은 학교 같은 곳에서는 개혁적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진화적으로 조금 씩 교학팀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는 스스로 얘기합니다. ‘열심히 안하면 돈이 있어도 못한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돈이 따르는 것이고, 스스로 열심히 하면 하늘이 돕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돈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기금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외에 다른 리소스에 대해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비전2023이라는 게 허황된 꿈 은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의 사항 있으 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해진 평의원님 만족하십니까?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평의원 이해진 : 저는 대학의 비전을 말씀해주시는 자리에서 참 실망스러워요. 비전을 선포하여 2013년에 Top10에 재진입 하겠다. 그전 비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척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아주대학의 비전을 만드는 실력이 이것밖에 안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아주대학의 철학적인 비전은 이미 있습니다. 학교의 설립이념이라는 건 명확합니다. 그런 것은 가지고 있고, 이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전략상의 비전을 말씀드리는 건데, 비전 이전 누가 만드신 거죠?

기획처장 김민구 :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을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대학의 시스템에 평가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나요?

기획처장 김민구 :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전략이 네 개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기에 따라서 1년 주기, 5년 주기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제가 지난번에 질문 드렸던 내용은 내년에 몇 위를 하겠다 라는

< 간서명 란 >

의 장



내용보다는 증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5년 후에는 어디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하는 우리의 액션플랜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기획처장님 2013년에 Top10 재진입을 위해서 진도 체크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단계별 핵심지표에 실제로 1단계를 달성을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제가 느끼기에는 Top10에 재진입하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가지고 학교를 관리하고 있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주대학이 5년 후, 10년 후에 과연 어떤 분야에서 어디에 가있는가에 대한 것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지금 지적하시는 게 아주대학교가 어느 분야를 열심히 해서 잘할 것인가 이겁니까?

평의원 이해진 : 예를 들면 학부의 교육은 기초교육을 탄실하게 하겠다, 대학원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대학으로 가겠다하는 이런 비전 말입니다. 외국인 국제화에 관련된 내용도 여기 나열된 지표만 가지고는 국제화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비전을 전략적으로 풀어내고, 각 조직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풀어내고자 하는 액션플랜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신 것도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어디로 갈 것이다 라는 당위성 보다는 규모면에서 비용면에서, 또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이 나 약학대학도 왜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비전전략 이런 부분을 엮어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실제로 대학이라는 게 저희가 35년 이상을 그런 틀 안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관리를 이미 자율적 책임경영이라는 지표로 가고 있고요, 물론 자율적 책임 경영 안에는 정성적인 지표도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리노베이션 하는 것 중 하나로 아까도 말씀드린 자율경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제가 말씀 드린 게 옳고, 기획처장님 말씀 하신 게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목표와 세부계획은 있는데 중간에 그것을 잇기 위한 전략의 관리가 빠져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일영 : 처장님, 일일이 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

< 간서명 란 >

의 장



셨으니까 의견을 받아주시기 바라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처장 김민구 : 여러 각도에서 의견을 듣는 게 저희도 도움이 됩니다.

의장 이일영 : 자율책임경영은 대학의 생명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새로운 학과를 만들고 할 때 관련된 교수들이 충분히 의견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새로 생기는 금융공학부 과정에서도 경영대학 교수님들이 전혀 듣지도 못한 내용이 위에서 만들어져서 밑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무처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처장 김민구 : 저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와 경영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의장 이일영 : 그 얘기한 사람들은 기회를 줬는데도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교수들이란 말씀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그렇겠죠. 왜냐하면 공고도 했고, 학장님한테도 의견을 내어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장 이일영 : 당연히 학장이야 그렇다 치고, 대부분의 교수들이 사전에 이걸 알고 있었던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들은 얘기는 사전에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만들어졌고, 그 배후에는 어떤 작자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진 걸로 얘기가 되니까 정말 이것이 소위 밑에서부터 필요가 있다 해서 만들어진 대학이냐는 말씀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적으로 학교가 '이것은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해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러나 학교가 의견을 내더라도 공청회를 거쳐서 가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아무 의견도 안 물어보고 할 수는 없겠죠.

평의원 이해진 : 아주대학교 내에 지식경영시스템이 있나요?

기획처장 김민구 : 아주대학교에 지식경영시스템은 없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위권 내에 가기 위한 의과대학과 공과대학의 합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주대 지식경영시스템을 구축해서 중간 전략적인 부분을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네, 의견 고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평의원 박윤규 : 저는 학교하고는 무관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는 타겟을 놓고 나갈 때에는 먹고 살 길이기 때문에 좀 매섭거든요. 그런데 학교라는 곳은 좋은 게 좋은 거고 책임론에 대해서는 좀 부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를 1단계, 2단계, 3단계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다보면 퇴직하

< 간서명 란 >

의 장



시는 분도 있을 거고 무관심 속에 흩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책임론 같은 것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주체부서가 있어야 추진이 되지, 2023년까지 장기비전으로 놓고 본다면 실제 업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책임부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쟁점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에서도 좀タイト한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좋은 말씀이신데, 얼마만큼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솔루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2023 비전 선포 때, 재단에서 안 나왔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것이 치명적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포식을 할 때 재단 이사장도 안 보이고 재단에서 사람이 안 나왔다는 것은 ‘너희들 맘대로 알아서 해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고 굉장히 실망했는데, 이런 것을 선포해 놓고 총장이 내년으로 끝나면, 차기 총장이 이 뜻을 잘 받들어서 할 수 있는 총장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15년 동안 잘 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진행에 대한 그래프가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나 디테일 하게 안 나왔다고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확실히 짚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중한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AIMSⅡ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자동으로 종합분석이 되고 지표의 달성도와 개별 분석 그래프가 나타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아주대학이 국내순위가 가장 높았을 때는 몇 위죠?

간사 이중한 : 7위입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김덕중 총장님 때죠? 김덕중 총장님 때 조직을 활용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팀이 여섯 번인가 내려왔었어요. 병원에 세 번, 대학에 세 번 내려와서 시스템 정비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UI팀을 내려 보냈습니다. 대외전략은 이렇게 나가자, 대내전략은 이렇게 나가자 이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때 7위였습니다. 박윤규 의원님 말씀처럼 외부는 어떻게 할래, 내부는 어떻게 대응 할래 이런 내용이 있는 다음에 액션플레이 나와야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아시아 Top 몇 위 이것을 지표로 가져다 놓으면 단기적인 임기응변식의 목표설정과 목표달성에 따르는 선택만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일영 : 여기서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기획처장님께서 여기서 나왔던 얘기를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행하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네, 고맙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이일영 :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칙 개정안이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사 이중한 : 아주대학교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대학이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에 선정 되었으며 대학본부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를 신설하여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평생학습중심대학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53조에 의거 시간제 등록생 자체를 별도 모집하여 별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 제4조 보시면 특별기구로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 를 신설하여 기구설립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 7조를 보시면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의 임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 운영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위임을 했습니다. 제56조 시간제 등록생 보시면 통합반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별도반으로 분리 하였습니다. 뒤에 7페이지 보시면 기구표에 평생교육원 소속 센터인 중소기업 인력 개발센터를 특별기구인 평생학습중심대학 추진본부로 편입시켰습니다. 평생학습중심대학추진본부 소속으로 성인학위과정운영센터, 창조인재교육센터, 평생교육연구개발센터, 성인학습 및 HRD컨설팅센터의 5개 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직도는 9페이지 보시면 조직구성(안)에 있습니다. 8페이지 다시 넘어오시면, 계열에 속하지 않는 학과로 금융공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석사과정은 이학석사와 금융공학석사 두 종류를 두었고, 박사과정에는 이학박사와 금융공학박사, 석·박사통합과정에는 4가지 학위를 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유승익 : 금융공학과 설립과 관련하여 경영대학 교수님들의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경제학과, 사회학과 교수님도 개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학내의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추진하시려는지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간사 이중한 : 본안의 WCU사업의 금융학과는 대학원의 학과이고, 예산과 별도 정원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학부과정에 금융공학부를 신설함에 있어서 내부적인 합의와 의견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기획처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청회도 했습니다. 내부적인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경영대학 자체의 인원은 20명이고 자유전공에서 20명을 더 지원해서 경영대학 전체로는 20명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그건 아직 올라오지 않았죠?

간사 이중한 : 네, 교무회의에서 결의만 되었고 아직 학칙개정(안)이 상정이 되지

< 간서명 란 >

의 장



않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 이거는 대학원에 대한 얘기죠?

간사 이중환 : 네, WCU사업 부분입니다.

의장 이일영 : 다른 질문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 해주십시오.

평의원 일동 : 예.

의장 이일영 : 결산안 전에 하나만 더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13차 아주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록 수정이라는 안이 있을 텐데, 총장과 교수들이 만나서 이야기 하는 부분에 어떤 특정교수의 얘기를 Quote(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의 Quote는 제가 Quote를 했고, 두 번째는 이원희 교수님께서 Quote를 했는데,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겠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총장께서 처음에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이야기를 하다가 공과대학 동료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인데, 가운데 특정 교수의 얘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나의 착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현되었으므로 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전 포스트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얻어야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와 이원희 교수님은 이것을 빼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가 되었고, 이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으려 합니다. 제1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정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정정내용 -

| 정정전 | 정정후 |
|---|-----|
| 의장 이일영 : ... 공과대학에서 동료로 오랜 기간 같이 지냈던 한 교수가 '총장은 더 이상 내가 알던 분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라고까지 얘기를 하니, ... | 삭제 |
| 부의장 이원희 : ... 30년 이상을 같은 전공을 했던 아무개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가서 있는 자리에서 8명 교수 중 한 사람인데 예전의 서교수가 아니다. 서총장이 아니다. 사람이 예전사람이 아니네, 바뀌었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 | 삭제 |

이의 없으시면 제1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전원 : 이의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리안건 세 개를 끝냈고, 두어 달 늦었지만 본격적으로 2008학년도 교비회계결산(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겠습니까? 학교가 먼저 하겠습니까, 의료원이 먼저 하겠습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의료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오늘 총무처장께서 특별한 일이 있으셔서 부처장께서 대신 나오셨고, 의료원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예산 때만 하고, 결산은 제가 합니다.

의장 이일영 : 네, 알겠습니다. 의료원 시작해 주십시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2008학년도 의료원(의과대학 교비회계 제외)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8학년도 의료원(의과대학 교비회계 제외) 결산(안) 수입 및 지출 350,652백만원에 대해 설명하다. -

의장 이일영 : 감사합니다. 313억을 완전히 갚았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과거에 의료원의 수익으로 직접 계산이 되던 지하상가 운영이 재단으로 귀속되었기 때문에 의료원 직접수익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단이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다시 의료원한테 돌려주기로 되어있는 거죠?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돌려주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확실합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꼭 전액을 다 돌려준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장기차익금 95억 이런 것을 상환하는 부분 중에 같이..

의장 이일영 : 그것을 조삼모사라고 합니까? 그런거 같은데, 결국은 지하상가 수입으로 95억을 갚은 것은 실제로 갚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를 확실히 잡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사장이 친필로 서류를 만들어서 허균 선생이 기획조정실장일 때 저희가 받은 copy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313억은 재단에서 풀히 갚겠다' 그 약속을 10년 만에 지킨 것까지는 좋은데, 의료원의 수입에서 빼다가 갚았다 하면

< 간서명 란 >

의 장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한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의장님께서 매년 지적하시는 내용이라 저희도 답변 드리기 곤란하지만, 명확하게 계약자가 이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자가 이사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임대수익을 전출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 예전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네, 3년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 3년 전부터 완전히 재단으로 넘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을 점점 재단이 중앙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네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지난 한해 병원의 임대수익이 44억이고, 병원에 들어온 수익이 39억원 정도입니다. 한 5억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5억원 중에 그런 부분이 같이 해서 상환되었다 하는 의미 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임대료 가지고서는 그 313억을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의장 이일영 : 재단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자율적으로 의료원이 운영되던 부분을 그 쪽에서 가져가면서 의료원의 수익이 줄어든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현재 지하상가들이 결국은 친인척한테 다 가지 않습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거기에 의료기상은 정당한 입찰을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그것은 공간에 대한 임대를 주는 것과 관련해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들어와서 유상의 임대 공간을 활용하는 것과 그런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제가 여쭙보는 것은 공정한 입찰과정을 통해서 장소들이 임대가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의 뉴욕제과, 제가 기획조정실장 할 때 지적한 바이지만 입찰도 거치지 않고 들어와서 7~8년 동안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나갔는데..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그 당시에 병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병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병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옵션을 통해서 땅을 매입한다는 등 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현재 되어지는 입찰과정이 공정하게 되어 지느냐 거기에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네, 그렇게 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상사에 대한 얘기인데, 계속적으로 임대료 비슷한 걸로 우리한테 기여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지 않아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수도상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없습니다.

의장 이일영 : 확실합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외부업체에 대한 얘기를 학교 평의원님들께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병원을 운영하다보면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의료용품, 재료, 약품과 관련된 것들을 연간 천억 원 이상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개원 초에 도매상이라는 기업을 조그맣게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한동안 중단하고 있다가, 5년전 쯤에 병원에 재직하셨던 간부님께서 나가셔서 독립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셔서 병원에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쪽에다가 물건을 구입해서 주시도록 하고, 그 회사가 운영된 수익금을 저희 병원에 발전기금으로 기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기여 받은 금액은 110억 원 정도 됩니다.

평의원 유승익 : 몇 년 동안 기여 하셨습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일 년에 한 20억 정도 이상씩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김관균 : 병원 임대수익은 재단이 가져가면서, 관리하는 것은 병원이 관리합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일영 : 의료원에 대해서 더 아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자문하는 거니까 자문에 관한 사항도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주세요. 아까 자율경영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자율경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지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율경영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재단에서 관여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병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경영권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유승익 : 수도상사 한 업체를 통해서 구입합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천억을 특정업체에만 주면 공정 거래에 있어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입찰의 방식을 하고 있고, 워낙 다빈도 품목으로 1만 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거래처를 파악하고 선택하는 것 보다는 그쪽으로 품목과 수량만 발주하면 업체를 선택 하고 하는 것들은 그쪽에서 대신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유승익 : 수도상사에서 아주대학교 것을 연 200억 정도를 대신 구매해 주고 있나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대신구매가 아니라 하나의 업체입니다. 거래처입니다.

평의원 유승익 : 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매출 대비 수익이 3~4% 정도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에서 정부가 가격을 품목마다 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조회사에게 가격을 높여주면 국민 의료보험료가 올라가야 하고 건강보험공사 내 적자를 야기하기 때문에 가격을 굉장히 억제하므로 이익률은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의원 유승익 :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연세대학교도 그런 비슷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재단에서 운영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별도의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유승익 : 네,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고 리베이트 같은 것을 받지만 모든 금액을 학교에 기부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크게 문제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학교도 연세대학교 모델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저희도 그러고 싶은 욕망을 개원 초부터 계속 가지고 시도를 해서 초창기에 하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 상사를 운영하려 하다보면 저희가 대금을 결제해주고 제약회사하고 거래하는데 담보로 해야 하는 그 부분이 솔직히 저희 병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평의원 유승익 : 네,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할까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거기는 초창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부진할 때에 조속히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한국 카톨릭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성모병원에 가는 것은 여기서 모두 구매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을 좌지우지하는 거대 도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 합니다.

평의원 유승익 : 저희라고 얘기하시는 게 누구입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아주대학교 병원입니다. 저희 아주대학교 병원은 불가능 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유승익 : 병원 구성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그 내용을 모르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서 들여다보고 공부한 바로는 한 2천억 원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의장 이일영 : 다른 것보다도 아무리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불공정거래인데 그렇게 수익도 얼마 나지 않을 바에는 치워 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이일영 : 만일 4%씩 이익이 난다고 하면 1년에 80억 이상 날 텐데, 80억 이상 들어와야죠. 전부 5년 동안 합해서 110억이면, 한 해에 20억 들어왔다 친다고 해도 60억은 어디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재단에서 가져가십니까?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의장님 말씀하실 땐 '들어오고 있군요' 하시더니...

의장 이일영 : '들어오고 있군요' 라고 한 것은 그 전에는 들어온다는 아무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들어온다는 것을 처음 밝혔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이왕 들어올 바에는 이익이 나오면 4%가 다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의료원 행정부원장 김형식 : 인건비 인력 운영도 해야 하고, 배송하는 인력도 필요 하고 해서...

의장 이일영 :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만일 그걸 계속 유지하려면, 유지할 만큼 justify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확실히 도움이 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거래이니까 치워버리고 공정입찰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의료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윤기 부처장님 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처장 김윤기 : 총무처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현황은 경리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장 안영찬 : 2008학년도 본교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8학년도 본교 교비회계 결산(안)(의과대학 교비회계 포함) 수입 및 지출 189,821백만원에 대해 설명하다. -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이일영 :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대의원회에서 질의했던 사항 혹시 알고계십니까?

경리팀장 안영찬 : 네, 지난번 대의원회에서 질의하신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 토지매입내역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하였고, 각 특수대학원 등록금 수입현황을 알려 달라고 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채관련 의료원 313억 그리고 본교가 부담해야할 78억원이 다 상환 되었는지에 대한 세 가지 부분입니다. 2005학년도에 토지를 매입한 부분이 2006년 1월 31일 영통구 원천동산26-9 약 261평에 대해서 198,720천원 정도로 구입을 했고, 재원은 본교와 의료원이 50:50으로 부담을 해서 구입한 내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입한 게 2007년 7월 18일 원천동 9-3, 10-2, 10-4, 11-22, 11-23, 39-2의 총 997평에 대한 총금액이 3,740,960천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교와 의료원이 50:50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2009학년도 매입예정인 산26-1, 산25의 총 4,345평 가량으로 예정금액 4,800,000천원을 본교, 의료원, 법인이 3분의 1씩 해서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원래 소유는 시입니까? 수원시에서 매입한 것입니까?

간사 이중한 : 과거에 매입한 것은 국유지이고, 금년도 매입예정은 사유지입니다.

의장 이일영 : 금년에 48억 원은 사유지이고, 그 위쪽은 시입니까?

간사 이중한 : 캠퍼스 내에 일부 분포되어 있는 국유지에 대해 그동안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4~5년 전부터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수원시에서 매입하는 게 좋겠다고 하여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 매입가는 어떻게 되나요?

간사 이중한 : 공시지가입니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겁니다. 금년 매입계획 부분들도 주변시세가 평당 800~1천만 원이거든요.

의장 이일영 :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리뷰했던거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경리팀장 안영찬 : 2008학년도에 각 대학원별로 총 350억원 정도가 등록금 수입이 실현되었습니다. 일반대학원은 입학금을 다 포함해서 약138억원 정도, 교육대학원 약42억원 정도, 경영대학원이 약75억원, 산업대학원이 약13억원, 공공정책대학원이 약 14억원, 국제대학원이 약7억원, 정보통신대학원이 약39억원,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이 약7억원, ITS대학원이 8억4천만원, 보건대학원이 4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의장 이일영 : 전체 대학 예산대비 얼마나 됩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정리팀장 안영찬 : 등록금 수입이 전체 학부다 포함해서 약 58%구성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부처장 김윤기 : 전체등록금 수입 중에 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일영 :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정리팀장 안영찬 : 마지막으로, 2000년도에 법인으로부터 공사비에 대해 이관받은 부분이 78억 정도 되고, 세부적으로 차용처는 동양종금에서 26억9천, 한국종금 51억해서 총 78억에 대한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동양종금은 2000년 3월에 이관받아서 2001년 5월에 약 20억 정도 상환을 했고 2002년 4월에 약7억 정도 상환을 해서 동양종금에 대한 26억9천은 상환 완료했습니다. 한국종금은 2003년 3월말에 30억을 상환했고 2005년 2월말에 나머지 21억을 상환했습니다. 총 78억은 2005년 2월 시점으로 상환 완료되었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차입금이 동양종금 한국종금에 있는데, 저것은 1금융권이 아니고 2금융권 아닙니까?

정리팀장 안영찬 : 그렇습니다.

평의원 김관균 :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에서 차입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리팀장 안영찬 : 차입은 법인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차입기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의장 이일영 : 혹시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교비결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최인규 :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4쪽에 전입금 수입에 경상비 해서 나와 있고, 축제지원금 등으로 해서 1억1천만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재단에서 축제지원 부담이나 그런 것에 관해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예산팀장 배영환 : 매년 학술제나 대동제 행사가 있을 경우 재단에서 일정액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학생처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최인규 : 학기 초에 본예산이 짜여질 때 편성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팀장 배영환 : 본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 이유는 지원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예측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지원금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것은 법인의 결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평의원 최인규 : 작년에는 얼마쯤 들어왔던 걸로 나와 있나요?

< 간서명 란 >

의 장



예산팀 장주아 : 1,500만원입니다.

평의원 최인규 : 1,500만원이요? 저도 2학기에 축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쭙봤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재무제표 19쪽에 연구학생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가 25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연구학생경비가 학생들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 집행이 다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남은 거면 등록금 인상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적은 돈 이지만 학생 보건체력비 이런 부분은 체육관에 헬스시설은 엉망이거든요.

예산팀장 배영환 : 그것은 축구부 것입니다.

평의원 최인규 : 축구부 것입니까?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학생지원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쓸 곳이 많을 것 같은데 25억이 남게 된 게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주세요.

예산팀장 배영환 : 그것에 관련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학생경비 총 미집행금액은 25억입니다. 연구비쪽에서 6억2천, 학생경비 16.8억, 입시관리비 2억 정도가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연구학생경비 전체금액으로서 미집행 금액은 대부분 특수대학원쪽 입니다. 특수대학원은 책임운영부서제도 하에서 오버헤드만 학교에 납부하고 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미집행잔액은 특수대학원 자체 발전기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경영대학원 교재개발비가 약 1억원, 특수대학원 교재개발연구 약 0.8억원, 연구팀의 연구조성비 약 4억원, 기타 교내연구비 약 0.5억원 / 특수대학원 장학금 약 4억7천만원, 특수대학원 해외현장연구 약 2억원, 정통대 IT 교육 학생분야 약 1억원, 특수대학원 논문심사료 약 1억원, 특수대학원 학생지도비 약 1.5억원, 경대원 콘텐츠개발비 약 3억원, 경영대학원 교육용역비 약 0.7억원 / 특수대학원 입시광고 약 2억원 등으로 연구학생경비가 약 25억원 정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특수대학원과 평생교육센터, 어학교육센터가 포함된 책임운영부서에서 2008학년도에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약 47억원 정도됩니다.

평의원 최인규 : 제가 예산팀장님 보시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산팀장 배영환 :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평의원 최인규 : 25억원 부분은 책임운영부서에 다시 들어가나요?

예산팀장 배영환 : 자체발전기금으로 들어갑니다.

평의원 최인규 : 책임운영부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교 기금으로 들어가나요?

예산팀장 배영환 : 책임운영부서, 구체적으로는 특수대학원별로 기금이 따로 적립되

< 간서명 란 >

의 장



게 됩니다.

평의원 최인규 : 보신게 세부항목 내역별 인가요?

예산팀장 배영환 : 계정과목별입니다. 2009학년도에 종합관을 착공하게 되는데 여기에 발전기금으로 적립된 부분 중 약 120억원 이상의 금액을 특수대학원에서 부담하여 종합관을 신축하게 될 것입니다.

경리팀장 안영찬 : 참고로 연구비 수입재원은 12페이지를 보시면 산학협력단 전입금 45억원이 있습니다.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전입금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5억원 가지고 쓰는 겁니다.

평의원 유승익 : 부처장님께 말씀 드릴게요.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지난 14차 회의록을 보면 펀드에 관해 투자를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종목에 대한 결정은 누가 내렸느냐, 지금까지 투자한 총액수는 얼마이고 총수익은 얼마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펀드내역과 평가손이 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한 내용과 학교내외에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답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총무부처장 김윤기 : 상세한 세부내역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총무처장님께서 어느 정도 규모의 은행에 어떤 펀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당시 5월말 현재 평가손익도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규모에 대한 자료를 드렸는데 참석을 하신 다른 분들은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혹시 못 보셨습니까?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 무엇인가요?

평의원 유승익 : 저는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따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최인규 : 주식시장이 호전되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5월말 당시에 60억 가량의 평가손익이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총무처장님께 듣기로는 기다려보자 라는 것 밖에는 없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 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를 요구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전이 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지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우려도 됩니다. 어떤 경제전문가는 8~9월에 경제위기가 다시 한 번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판단을 할 때 누가 할 것인가? 자금운영위원회가 준비 중이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진전이 된 게 있는가 궁금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총무부처장 김윤기 : 추가대책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총무처장께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주식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펀드 중 일부는 손실규모가 큰 게 있고 일부는 적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펀드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도 받았습니다. 자금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평의원 최인규 : 질문을 드리자면, 저는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 위기가 다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호전되고 있다고 해서 믿고 기다리기 보다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부처장 김윤기 : 기본(안)은 마련되어있고,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평의원 유승익 : 저는 14차 회의에는 못 들어왔지만,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총무처장께서 공개해도 될 내용들을 공개하지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는 다 공개가 되었는데 평의원회 와서 왜 그런 태도를 보이셨는가 하는 아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공개를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평의원회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평의원 박윤규 : 주식에만 투자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부처장 김윤기 :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주식에 투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간접투자를 통해서 6개 증권사 또는 은행에 분산투자를 했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펀드 쪽에는 아니고요?

총무부처장 김윤기 : 전부 펀드로 되어있습니다.

평의원 유승익 :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을 어디에다 배분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첨예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총무부처장 김윤기 : 사학기관들의 재무관리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비슷한 고충을 앓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사학들이 기본 예금이자를 차감하는 형식을 취해왔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해왔기 때문에 하나의 펀드 또는 하나의 금융에 대해서만 손실 나는 부분을 표시하기 시작한다면 어느 자금운용 담당자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예금이자에서 차감하는 형식을 빌어서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 최근 이사회 회의록에 다 나와 있고, 이사회 회의록에 감사지적

< 간서명 란 >

의 장



사항입니다. 아마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 2008회계년도 감사 관련해서 아주대학교 기금 562억과 일반유동자금 407억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액 중 수익증권 및 위험자산에 총293억원이 투자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3월 25일 현재로 107억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것에 대한 내부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특례규칙 33조에 근거하여 향후 기금과 유동자금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기금의 손익과 유동자금의 손익이 분리되어 표기 되어야한다는 지적사항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의 후속조치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총무부처장 김윤기 :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기금을 조성하는 시점이 회계연도말 결산을 5월에 하기 때문에, 2월말 시점하고 5월말 결산 시점이 다릅니다. 이것을 분리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은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평의원 최인규 : 추가로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사립학교법에서 200억이 투자되면 50%이상 손해를 보지 않는 한 200억으로 명시해야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대학평의회에서는 앞으로 본예산, 추경예산, 결산에 대해 자문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시기에 맞는 평가손익이 꾸준히 명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의 구성원들로 구성된 회의에서 우리 학교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얼마의 손익을 보고 있다는 내용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꾸준히 게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부처장 김윤기 : 건의를 드려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최인규 : 저는 펀드투자내역 보면서, 부동산 펀드 들어 있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수익을 더 내고자 하는 건데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게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일인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들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부처장 김윤기 : 참고적으로 작년 2008년 3월 이후에는 저희가 펀드에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기에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가 2008년도 초반기에 일부 펀드가 만기가 되어서 그때 이익이 돌아온 것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펀드 중에 부동산 펀드에 들어갔던 부분은 2007년도 2월 경인데, 그 당시에 자금 운영을 하는 부서에서의 판단은 증권사가 권유할 때 2007년 2월 시점 이전에 10년 동안 부동산 펀드의 투자수익이 15% 정도로 나타나 있었습

< 간서명 란 >

의 장



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펀드와 자금을 예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부동산은 대계 오피스텔이나 기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한다는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펀드에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최인규 : 네, 저는 이전의 과거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팔 수 있으면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좋은 지적입니다. 대학은 대학으로서의 다른 면모가 있어야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특별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잘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평의원회 자료공급에 있어서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누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머리를 모아서 학생회장을 다 포함해서 다 머리를 모아서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잘해보자는 것이고 비전까지 우리가 다 공유를 하는데 정말 그 숫자로 몇 등의 기준이 아니라 아주대학교하면 이미지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토의사항이 다 끝났습니다. 혹시 다른 이야기 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유승익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지금 울곡관, 다산관, 성호관 쪽에 장애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울곡관의 경우 의과대학 앞에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차를 울곡관 동편길 중간에 세우고 학생들을 상하차시키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일영 :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졌습니까?

평의원 유승익 : 없어졌습니다.

의장 이일영 : 누가 주차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시 살려야겠습니다.

총무부처장 김윤기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애우에게 불편 없도록 다시 조정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원희 : 그건 법적으로 하면 금방 걸립니다. 금방 신문에 나고 뉴스탑니다.

의장 이일영 : 그것을 빼다가 이사장님 주차 자리를 만들면 안 되죠.

평의원 유승익 : 옆 자리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의장 이일영 : 원래가 장애인 주차장이었어요.

평의원 유승익 : 창피한 얘기입니다.

의장 이일영 : 그래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해진 : 비전하고 발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그 중 일부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의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매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번에만 느낀 게 아니고 아주대학이 너무 순위에 연연해서 평가척도에 맞추는 행위만 계속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윤규 위원님께서 기업체 말씀도 하셨지만, 학교 경영하는데 기업체가 어디 있고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발전기획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기획처장님 발표한 첫마디에 실망스럽다 표현해서 언짢으셨겠지만 솔직한 표현이었습니다. 발전계획이 만들어지면 시간사용계획, 전략실행계획, 평가계획이 3가지가 갖춰져야지 기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아주 방대한 조직입니다. 조직적으로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래, 단위조직들은 이걸 달성하면 무엇을 할래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5년 후의 모습을 어디로 가져갈래, 저는 그런 모습을 바랐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관계로 다시 한 번 전략실행계획을 한번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간사 이중한 :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발표하려니 계량화된 내용들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주비전2023 책자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비전선포와 아주비전2023은 아젠다 형식으로 책자를 만드는 것이고, 그 실행계획은 6개의 큰 기둥으로 평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중앙일보 전국대학평가 순위 상위 30개 대학에 대한 모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정보공시에 보면 비교 가능한 계량화된 수치가 25개입니다. 25개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 실태를 다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시다면 발간한 책자를 다음 회의 때 드릴 수 있습니다. 25개 대학 33개 전공까지 다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학부자율 운영이나 모든 부서에 있어서의 평가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각 목표를 학부에서 세우는 것이고 그것을 매번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아주대학교가 자체평가 시범대학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모든 평가라는 부분들이 아주비전2023에 맞춰서 우리대학이 1단계에 해야 될 일, 2단계에 해야 될 일 전부 제시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연차별 목표를 부서에서 수립하게 되어있고 그것을 예산 편성할 때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그 목표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년차가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금년도에 AIMSⅡ가 개발이 되면 누구든지 클릭만 하면 진도율과 현재 타 대학 비교순위까지 다 나오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해진 : 아젠다가 있으면 사전에 보내주면 좋겠고, 보내주신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대학비전과 발전계획은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매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 매번 평의원회 때마다 우리 비전과 경과에 대한 것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저는 병원 부분도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우수 의료팀들이 거점을 잡고 내려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내용도 아주대학 병원이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비전을 체크하고, 단위를 좀 쪼개더라도 매번 조금씩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유승익 : 솔직히 아주비전2023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추진할 당사자들이 빠지고 거의 본부에서 만든거 아닙니까?

간사 이중한 : 개교 30주년인 2003년을 기해 개교 40주년인 2013을 준비하는 ‘아주비전2023’을 만들었는데, 1년에 걸쳐 전 구성원의 의견조사와 수차례의 워크숍 등을 거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던 계획서입니다. 그러나 학내사정으로 제대로 실행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아주비전2023’은 ‘아주비전 2013’을 현재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끔 수정·보완한 것으로 ‘대학발전위원회’와 교무위원 워크숍을 통해 보완하였습니다.

의장 이일영 : 총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비전입니까?

부의장 이원희 : 책자 나온게 있다니까 책자를 빨리 보내주시고, 다음 회의 때에는 그 항목을 가지고 추상적인 얘기보다 세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아까 이야기 한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거든요. 교수는 어떻게 질을 높이고, 외부학생은 어떻게 유치하고 등등 이런 것들은 누구 한명이 마이크 잡아서 썰 간다고 해서 되는 일 아닙니다. 발대식을 갖고 선서식을 하고 마음에 우리 나게 전부 한사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공지를 주면서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하려면 진짜로 성의와 열의를 다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장 이일영 : 우리가 선포식을 했는데 참 그때 초라하게 했습니다. 9시 뉴스에 나가긴 나갔습니다만 법인에서는 완전히 관심 없는 것처럼 나왔고 구성원들만 삼질을 했는데, 전교생이 다 모이고 교수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쁘지 않은 사람 나오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선포식을 거행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선포식은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이것을 계속 밀고 추진하려면, 구성원들이 밀바닥까

< 간서명 란 >

의 장



지 동의를 하고 정말 같이 해보자 이런 결의가 있어야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동문에 대한 평가, 졸업생에 대한 평가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졸업생이 대부분 일겁니다. 학교에서는 동문들에게 이런 부분을 요구한다는 것을 동문회에 요구하세요.

간사 이중한 : 그 부분은 조선일보-QS 대학평가보다도 중앙일보 평가에서 비중이 더 큼니다. 조선일보-QS 대학평가는 심플합니다. 조선일보-QS 대학평가는 아시아 지역 대표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아주대학교 출신에 대한 평가만 받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동문에 대한 평가가 4가지 정도 됩니다. 고시나 회계사가 얼마나 됐느냐, 상장기업의 CEO가 몇 명이나, 아주대 졸업생이 리더십이 있느냐, 뽑고 싶으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두 언론사의 평가는 역사가 짧고 졸업생 수가 적은 우리대학은 불리한 면이 많습니다.

평의원 이해진 : 평의원회에서 여러 안전을 다룰 것도 많으나 거기에 30분 정도 할애하자는 의견입니다.

의장 이일영 : 매번 학교의 비전과 발전 follow-up에 관해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이중한 : 의장님, 7분가량 되는 비전 동영상 홈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의장 이일영 : 괜찮으세요? 아주 바쁘시지 않으시면, 7분 동안 보십시오.

(비전 동영상 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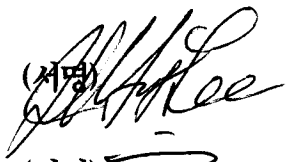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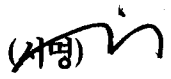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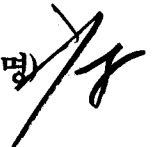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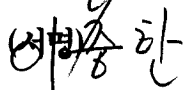
의장 이일영 : 감사합니다. 다음모임은 추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2009년 07월 14일

| | | |
|------|-------|--|
| 의 장 | 이 일 영 | (서명)  |
| 부위원장 | 이 원 희 | (서명)  |
| 평의원 | 유 승 화 | (서명) |
| 평의원 | 이 순 일 | (서명) |
| 평의원 | 유 승 익 | (서명)  |
| 평의원 | 오 상 탁 | (서명) |
| 평의원 | 이 화 숙 | (서명)  |
| 평의원 | 최 인 규 | (서명)  |
| 평의원 | 김 찬 영 | (서명) |
| 평의원 | 김 관 균 | (서명)  |
| 평의원 | 이 해 진 | (서명) |
| 평의원 | 박 상 호 | (서명)  |
| 평의원 | 박 윤 규 | (서명)  |
| 간 사 | 이 중 한 | (서명)  |
| 기 록 | 진 성 호 | |